

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of Safety Managemen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mall Construction Site

이상도*
Lee, Sang-Do

요약

소규모 건설 사업장에서는 한 사람이 과도하게 많은 관리영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므로 특정 영역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이와 같은 소규모 프로젝트는 작은 규모로 인해서 정부의 관리 통제에서 면제되고 있는바, 이는 소규모 건설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와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 수준이 낮은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정부는 그간 전국적 사고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매년 백여 명이 넘는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다. 이는 그간의 관리 방법으로는 일정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어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건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는 건축물의 대형화 복잡화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며 그 중 대형건설사는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었고 상대적으로 소규모 건설 사업장과는 안전수준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미흡하고 전체사고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 소규모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안전사고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대형건설사는 광목하게 발전한 인프라 형성 과정과 부끄러운 대형 사고로 인한 참사들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형식적인 체계에서 벗어나 실제 근로자가 안전한 현장의 환경속에서 작업할 수 있게 그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중형건설사들 또한 그 흐름에 어느 정도 발걸음을 맞춰가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관리가 미흡하고 변화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정부에서는 건설사업장의 재해율의 저감을 위하여 관리감독, 현장점검, 재정지원 등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건설현장의 재해자 및 사망자수는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소규모 건설 사업장의 재해발생율이 전체 재해율의 80% 이상이 발생되고 있다. 해마다 발생되고 있는 재해자수는 공사 금액에 따라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사업장에서 전체 건설사업장의 평균 73%를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미흡하고 전체사고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발생현황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적이지만, 더 위험도가 큰 대형 현장의 재해율이 소규모 현장에 비해 크게 낮으며 2017년도 건설업 재해자수를 확인해 보면 건설현장의 재해가 발생하는 재해율은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의 사업장에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인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의 사업장에서 재해율이 약 40%, 3억원에서 20억원 미만의 사업장에서의 재해율은 약 32%,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에서 재해율이 대략 70%에 가량의 재해자와 사망자가 발생되었다. 종합적인 결과로 건설사업장에서의 사고발생은 공사규모가 작은 소규모사업장일수록 사고의 발생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회원 · 선문대학교 산업공학과 석사과정 lsd9459@naver.com

2.2 소규모 건설현장의 문제점

소규모 건설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현장보다 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건설사업장의 사고가 발생한 재해율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다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장은 대부분 대기업이 건설공사에 관여하여 관리에 있어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진행되어지며, 공사금액 3억원에서 120억원 미만의 건설사업장은 중·소규모의 건설사업체가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의 체제 구축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2.3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율 저감을 위한 개선방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해율 저감 개선방안으로 안전교육 방법시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하여 근로자에게 그 대상 직종에 맞는 전문적인 기술지식과 유해, 위험요인 및 재해에 관련된 사례 및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등을 강의식 또는 토의식 교육을 통해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여 근로자 스스로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인지시키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건설사업장의 재해예방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의 체계가 만들어져 기술지도를 통한 소규모 건설사업장의 재해자와 사망자가 발생되지 않도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결론

본 연구에 기초하여 소규모 건설현장이 상대적으로 대형 건설현장 보다 재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소규모 건설현장 즉 50억 이하 사업장 중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을 선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지원이나 기술적인 지원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소규모사업장의 재해방지를 위해 건설참여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임형철, 백낙규, 김대영, 정성춘 ‘ 소규모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지도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2018
- 장윤라, 고성석 ‘ 중·소규모 건설현장 증점 안전관리 항목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2020